

스마트워크, Anytime + Anywhere

당신의 사무실은 어디인가요?

최근 애자일(Agile) 경영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을 강조한 경영방식이다. 여기에 원활한 소통과 협력, 수평적인 조직 문화는 애자일 경영의 핵심이다. 스마트워크는 애자일 경영의 핵심을 관통하는 근무 형식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창의적인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한다. 본고에서는 스마트워크의 정의와 국내외 사례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한다.

1. 스마트워크란?

스마트워크, 적은 자원으로 더 큰 결과물을 만든다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IT(정보통신)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근무 환경을 말한다. 디지털 장비를 항상 갖추고 다니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에게 스마트워크는 가장 최적화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IT 인프라가 구축된 곳이라면 어디라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원격·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이 스마트워크의 대표적인 개념이다.

스마트워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이동형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보는 '모바일 오피스', 회사 내 특정 장소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 또는 회사가 아닌 제 3자가 제공하는 스마트워크 전용 공간을 활용하는 '스마트워크센터', 출퇴근 없이 집에서 업무를 보는 '홈 오피스', 유연 좌석제, 업무용 메신저, 영상·화상회의를 통해 업무를 공유하고, 처리하는 '스마트 오피스'다. 하지만 이제는 별도의 시



시스템이 마련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스마트워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워크센터나 홈 오피스 시스템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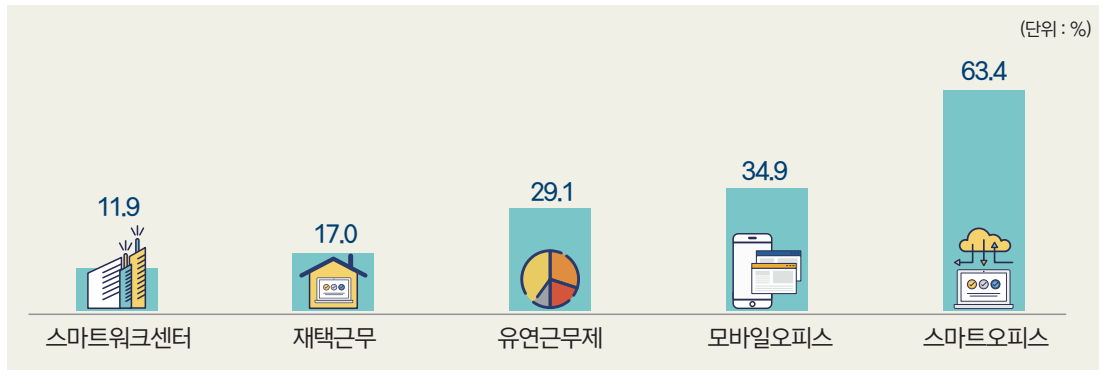
1-1. 도입 배경

IT 기술 진보와 일과 삶의 균형 추구

국내외 ‘스마트워크’ 환경이 요구되고 확산된 배경에는 IT 기술의 진보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자리한다. IT 기술의 진보는 회사라는 한정된 공간 개념을 확장하고, 스마트워크 환경을 촉진했다. 스마트워크 유형별 이용률[표 1]을 보면 ‘스마트 오피스’와 ‘모바일 오피스’의 이용 비중이 큰데, 이는 꼭 지정된 공간이 아니어도, ‘디지털기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일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스마트워크 유형별 이용률

(출처: 2017 스마트워크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두 번째로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사회 문화의 흐름이다. 이 같은 흐름은 업무 혁신을 요구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가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했는가 하는 관점의 변화다. 장시간 진행되는 대면 회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외부 미팅 등 출근 후 회사 내 업무 시간 운용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구성원 역시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식이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탄생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21세기형 노동 혁명은 ‘효율성’을 최고로 꼽는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IT 기술과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이 시대에 ‘오래 일하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스마트워크는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1-2. 스마트워크 핵심 기술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익숙해져야 할 IT 기술 용어가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원격기술, 기업용 협업 소프트웨어, 화상회의 솔루션 통합 커뮤니케이션(UC)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클라우드는 스마트워크를 통한 업

무 혁신의 핵심 기술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인터넷상에 있는 가상 데이터 서버에 프로그램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불러와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기존의 로컬 PC 기반 환경에서는 보안 USB를 사용하거나, 사무실로 가야만 업무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어느 컴퓨터에서든 로그인만 하고 들어가면 쌍방 파일 전송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사용자 간 일정 관리, 호출 기능, 영상통화 등의 메신저 기능이 가능한 기업용 협업 소프트웨어도 스마트워크 환경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사용된다.

2. 스마트워킹 민간기업 사례



스마트워킹의 유형과 방식은 다양하다. 단시간 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으로 대표되는 유연근무제 유형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협업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워킹 방식이다. 이번 장에서는 유형과 방식을 고루 활용한 국내외 스마트워크 사례를 소개한다.

2-1. 국내

[사례 1] (주)두산, 클라우드워킹으로 비용 절감 효과 특출

두산은 2014년부터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 기반의 클라우드워킹을 도입했다. 2016년부터는 클라우드 드라이브 기반 자료 작성 협업 체계를 시행하는 등 스마트워킹이 조직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방식에서도 변화를 꾀했다. 두산 기획부서가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보자. 팀장은 팀원들과 회의를 통해 전략 방향성을 논의하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다. 통상 일주일 정도가 지나야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데, 분명히 처음 회의했던 내용과 방향이 달라져 있다. 팀장은 재지시를 내리고, 팀원들의 작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마감 일정에 맞추기 위한 야근이 반복된다.

그런데 클라우드워킹 시행 후, 체계적이고 유연한 업무 진행이 가능해졌다. 전략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는 '클라우드' 내에서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전 팀원이 같은 공간, 같은 자료를 '실시간' 공유하며, 방향성을 맞춰야 하는 부분,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 나갔다. 때때로 자료 위에 메모를 달아두고 수정사항과 진행 중인 내용을 발전시켰다. 협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담당자를 작성자로 추가해 수정과 보기 권한을 부여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업무 생산성 향상과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출장 이동, 보고 대기 등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업무 시간이 40% 이상 감소했고, 영업 이익도 평균 7% 이상 성장(2015년 이후, 두산 연결재무제표 기준)하는 등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됐다.

Point '수평적인 소통'과 '협업 경영' 개인과 부서, 조직, 사업 간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시너지 창출

[사례 2]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연근무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선 재택근무 방식의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횟수에 제한이 없고,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서 전날이나, 당일 오전 상사에게만 보고하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커뮤니케이션팀의 A 직원 사례를 살펴보자. 워킹대디인 A 직원의 하루 일과는 오전 7시 30분에 시작된다. 간단히 씻고, 오전 9시까지 일정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메일과 스케줄을 체크하며 하루 일정을 정리한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개인 시간으로 자녀들의 등원 준비를 한다. 이후 A 직원이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전 11시. 그때부터 13시까지 회의나 업무를 진행한다.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는 집중 근무시간이다. 반드시 회사에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한다. 아태지역 팀원들과는 스카이프 회의도 진행했다. 17시에 회의 결과를 정리한 후 17시 30분 회사를 나섰다. 길이 막히기 전에 어린이집에 도착해 자녀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18시부터 21시까지는 자녀들을 씻기고 저녁을 먹이는 등 집안일을 했다. 이후 21시경 약 1시간 동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오피스365로 팀원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끝으로 하루 업무를 마무리한다. 이날 A 직원은 회사에서 6시간, 집에서 2시간 등 총 8시간을 일했다. A 직원은 유연근무제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고 더욱 짜임새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Point '일과 생활의 양립' & '짜임새 있는 하루' & '불필요한 이동 시간 단축'

2-2. 해외

[사례 1] 미국 벤처기업 오토매틱, 워크 프롬 홈(재택·원격 근무)

미국 벤처기업 오토매틱(개인용 블로그 제작 서비스 워드프레스 운영)의 경우는 전 직원 대상 원격 근무제를 시행했다. 최근엔 샌프란시스코 본사 직원 20명을 포함해, 전 세계 50개국 약 550명 직원 모두 원격 근무를 하는 셈이다. 이들은 직무에 상관없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탄력근무가 가능하며, 근무시간은 스스로 정하고 회사에는 그 결과만 보여주는 방식이다. 휴가도 규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쉴 수 있다. 오토매틱사는 직원 간의 협업 및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되는 P2P, 실시간 대화 도구 '슬랙', 영상 채팅 프로그램 '줌'을 이용해 효율적인 원격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트위터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외국계 IT 기업들 역시 이미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트위터 CEO(잭 도시)가 먼저 자발적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한 이후 직원들도 구글 캘린더에 '워크 프롬 홈'만 표시하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됐다. 직원들은 구글 행아웃을 이용해 화상회의를 하고 메일로 업무를 본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협업용 자체 툴 '워크플레이스' 개발·공개하기도 했다.

Point Work From Anywhere Anytime

[사례 2] 일본 기업 히타치, 텔레워크(Telework·원격 근무)

* 국제노동기구(ILO)와 Eurofound는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원격 근무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2017)했다.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독일, 영국 등 EU 10개국과 일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ICT나 모바일을 이용해 회사 밖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과 인접한 일본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다.

최근 히타치(日立)제작소는 앞으로 2~3년 내 사원 10만 명이 자택이나 외출지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텔레워크 체제 정비 계획을 밝혔다. 현재 히타치의 사원은 자회사 등을 포함해 일본 국내에 17만 명, 전 세계에서 30만 명이 일하고 있다. 텔레워크 근무자 10만 명은 일본 내 사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매우 큰 규모다. 지금도 자택에서 일하고 있는 사원 수가 1일 8000~1만5000명에 이른다. 히타치는 텔레워크 근무 방식을 확대할 경우 출퇴근 시간

을 줄여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차별화된 근무 방식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히타치 제작소는 지난 2016년부터 도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성사무실을 마련해 왔으며, 최근 1년 새 초창기 대비 6배 늘어난 41개의 위성사무실을 확보했다. 앞으로는 세어오피스 등 사외 근무 거점을 더욱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일본에서는 텔레워크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총무성에 따르면(2017년 기준) 후지쯔(富士通)에서는 3만 명 사원 중 70%가 텔레워크를 이용하고 있고, 도쿄해상닛토(日動)화재보험도 지난해 10월, 1만 7000명 전 사원을 대상으로 텔레워크 제도를 확대했다.

Point 차별화된 근무 방식

3. 스마트워킹 공공기관 사례

공공기관의 스마트워킹은 불필요한 업무와 관습을 제거하여 기관의 핵심 목적에 집중하고, 신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번 장에서는 전사적 수준에서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국내외 공공기관 사례를 살펴본다.

3-1. 국내

[사례 1] 한국농어촌공사, 시공간 제약 없는 스마트워킹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4년 9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서울에서 나주(광주전남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후 부쩍 잦아진 출장과 그에 따른 비용 증가, 맞벌이 부부 직원들의 육아 부담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공사는 스마트워크를 도입, 근무제도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와 원격근무제(Flex-Space 근무, 이동 근무, 재택근무)를 도입했다. 또한 집중 근무 시간을 기존 10시~16시에서 11시~15시로 변경하고, 출퇴근 시간도 조정했다. 장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이동 거리 최소화를 위해 주변 도시에 거점을 둔 공용 업무 공간을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 스마트워크 도입 후, 직원 만족도는 93%로 높았으며, 업무 효율성을 높인 공공기관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Point 시공간 제약 없는 만족스러운 일터

[사례 2] 인천공항공사,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만들기

인천공항공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워크를 도입했다. 일하는 방식과 절차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대신 문서 공동 편집, 자료 공유, 업무 지시와 처리 내용 공유 등 실시간 업무 현황을 공유하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이로써 인천공항공사는 작은 실천 하나로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 이는 잦은 부서 이동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자료 취합과 문서 작성 소요를 줄여 달라라는 직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근무 중 특정 자료나 정보가 필요할 때 공용 서버를 이용하는 것으로 업무 시간 낭비를 줄였고, 정보 격차를 없애는 등 스마트워크를 통해 똑똑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Point 양보다 질, 똑똑하게 일하기!

3-2. 해외(프랑스 및 유럽)

[사례 1] 유럽,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실천 '스마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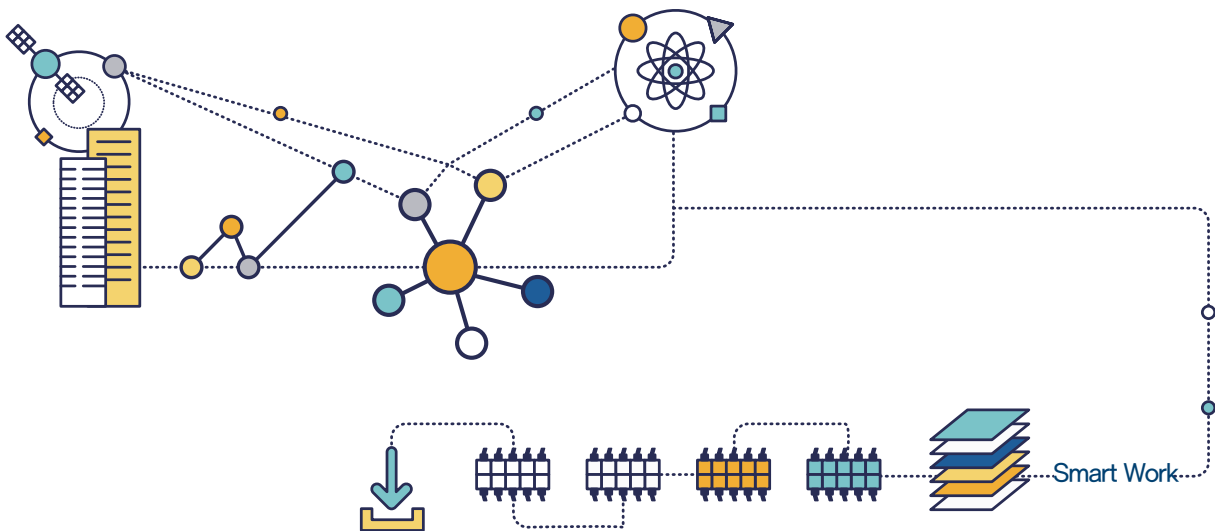
프랑스는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는 노동부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안의 일부이기도 하다. 프랑스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원격·재택근무를 장려했는데 그 핵심은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스마트워크 도입 사례가 증가 추세다. 토리노 시청 소속 엔지니어인 워킹맘 A 씨는 일주일에 4일 재택근무를 한다. 세 명의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터라 처음에는 직업을 바꿀까도 고려했지만, 시청에서 A 씨의 재택근무를 허용했고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해졌다. A 씨는 집에서 일하는 경우 오전 10시~12시까지는 반드시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그 외 근무 시간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연평균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독일(2015년 기준 1,371시간, 한국 2,113시간)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스마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지난 2014년 6월부터 고용권리법 하위에 유연근무제도를 추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실행 중이다.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인근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 중인데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Point 지역 균형 발전, 일과 육아 병행을 가능케 한 스마트워킹

[사례 2] 미국, 원격 근무제 조직 문화 형성

미국 정부는 지난 1979년 연방 공무원 유연 및 집약 근무제법이 제정된 이래 근무 시간 조정을 통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해 왔다. 1993년부터는 미국 인사관리처 주관으로 연방정부 원격근무제(Telework)를 공식 도입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 주도로 미 의회에서 원격 근무 활성화법이 제정됐다. 여기엔 정부 부처 직원들의 성과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격 근무 가능 대상자를 선별하고, 원격 근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방정부는 성공적인 원격 근무 확대를 위해서는 조직 내 관리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격 근무를 독려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최근 미국 조달청(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은 2020년까지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원 중 50%를 주 1회 이상 원격 근무 체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Point 스마트워킹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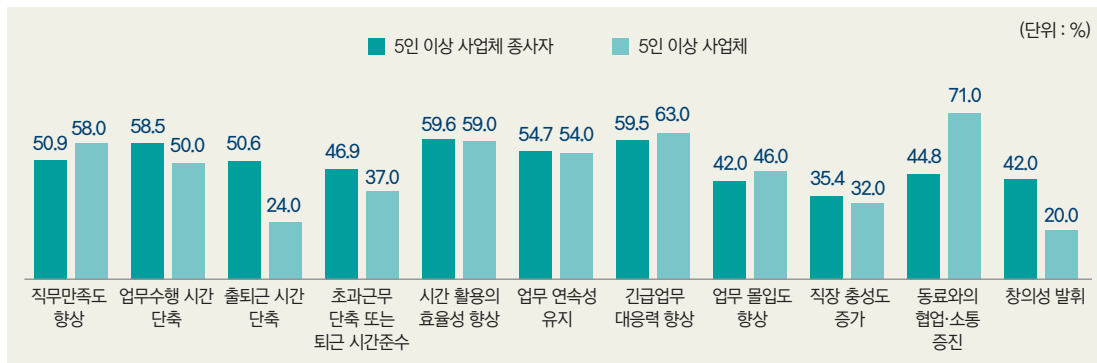
4. 스마트워크 기대 효과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생산성 향상 효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6년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8%(복수 응답)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도 96%에 이르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 측면에서도 생산성 향상 92%, 이직률 감소 92%, 우수 인재 확보 87.3%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 등 부가적인 효과도 거뒀다.

[표 2] 유연근무제 도입 효과

(출처: 2017 스마트워크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워크 이용 후 근로자 측면에서 체감한 효과를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시간 활용의 효율성 향상 > 긴급 업무 대응력 향상 > 업무수행 시간 단축 > 업무 연속성 유지 > 직무 만족도 향상 > 출퇴근 시간 단축 > 초과 근무 단축 또는 퇴근 시간 준수 > 동료와의 협업·소통 증진 > 업무 몰입도 향상 = 창의성 발휘 > 직장 충성도 증가 순이다. 기업 측면에서도 근로자 측면과 큰 차이 없이 동일 항목에서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운영비 ↓, 업무 생산성 ↑ 수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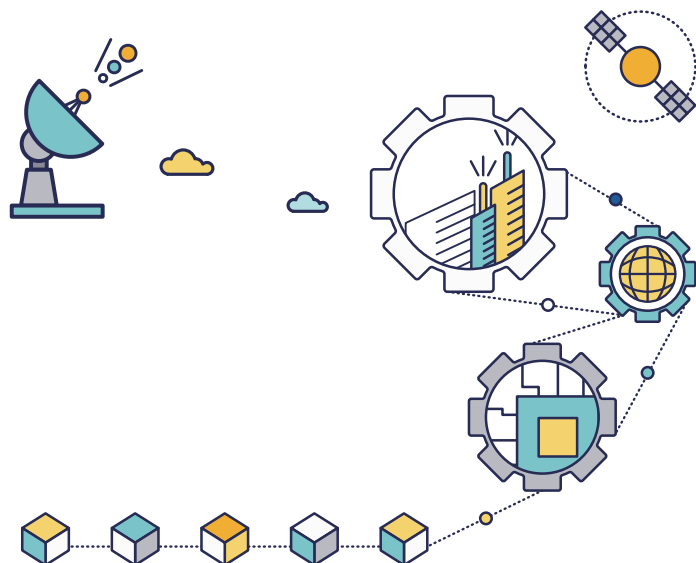
기업 입장에서 스마트워킹은 임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여 원가 절감,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 잦은 회의나 보고 자료 작성을 축소하고, 잦은 국내외 출장을 화상회의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큼 효율적인 경영 활동은 없다.

또 다른 하나는 고용 측면의 기대 효과다. 원격·재택근무를 통해 직업 시장 활성화라는 큰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는 인재 선발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 구직자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 내에서만 일자리를 찾거나 혹은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굳이 이직할 필요가 없으며, 기업에서도 인재를 놓칠 위험을 덜 수

있다. 또한 대도시에 업무 공간을 확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개인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회 문제 해결 실마리 제시

스마트워크 기대 효과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 사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수도권 인구 과밀 현상을 보이는 한국의 경우, 출퇴근 문제는 단순히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 문제를 일으킨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켜 저탄소 녹색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워크 환경이 대중화된다면 출퇴근 시간, 길거리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기 오염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프랑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원격 근무는 직무에 따라 생산성을 5~30%가량 향상시킬 수 있고, 결근을 20% 줄일 수 있으며, 공간 효율은 최소 30% 이상 향상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출퇴근을 위해 길에 뿌리는 돈, 시간, 에너지를 다른 생산적인 활동 내지는 여가 활동에 쓸 가능성도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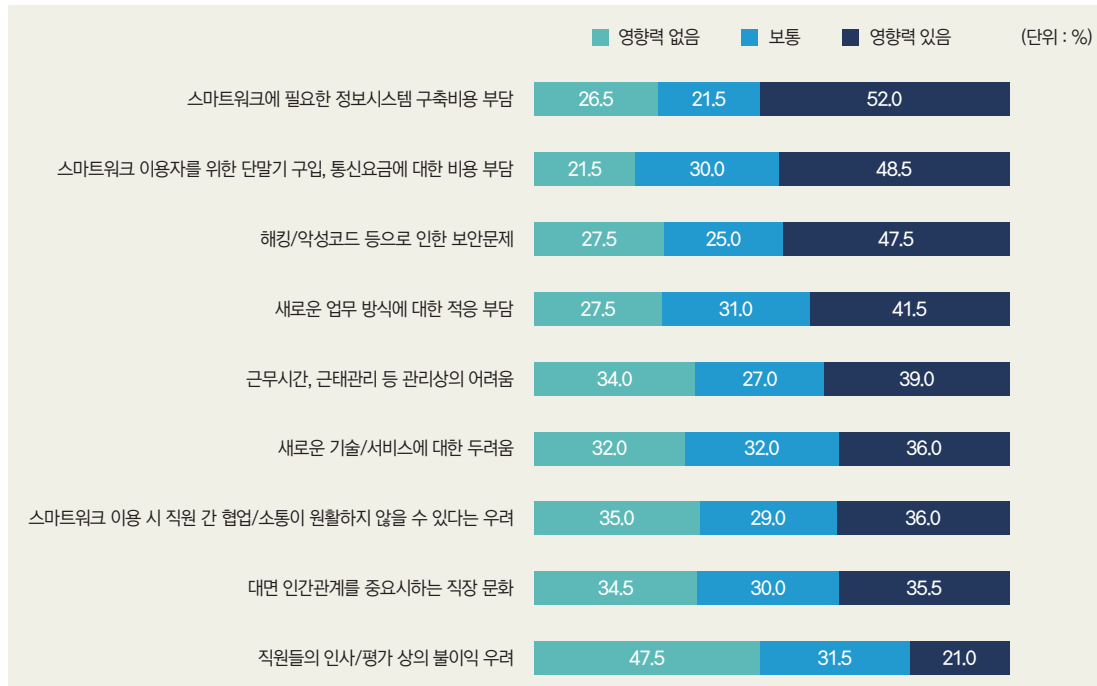
5. 시사점

접속을 끊을 권리와 병행할 때 더 효과적

원격 근무 활성화는 일과 삶의 조화, 출퇴근 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각에선 노동 시간 및 강도 상승,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 2~3일 정도의 원격 근무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스마트워크의 장점을 살리면서 고립감과 단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비공식적인 원격 근무 또는 모바일을 이용한 노동 시간 제한과 같은 제도를 통해 건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접속을 끊을 권리'를 노동법전에 반영하기 위한 법안을 개정 중이기도 하다.

[표 3]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장애요인

(출처: 2017 스마트워크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인식의 전환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일하는 방식의 진화

일부 기업에서 스마트워크 도입을 꺼리는 이유로 크게 노사 간 불신, 보안 문제를 꼽는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눈치가 보인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기업과 근로자 쌍방의 이유를 동시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워킹을 위한 5단계 업무 혁신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스마트워킹을 위한 5단계 업무혁신

(출처: Market Inspector, "Smart Working: 5 Steps to Rethink Work"(2018.11.13))

Rethink Leadership	수평적인 소통, 협업, 조정능력, 유연한 업무 수행
Rethink Workplace	IT 활동이 가능하다면 어디든 업무 공간으로 활용 가능
Rethink Technology	고객의 요구에 실시간 대응,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Rethink Culture & People	일과 삶의 균형,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한 팀워크
Rethink Office Property	사무 공간의 효율적 활용

한국은 아직도 사무실에 출근해 얼굴을 보고 회의해야 일을 하는 거라고 보는 전통적인 기업 문화가 지배적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국내 기업은 있었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러한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만 갖춰졌다고 스마트워킹이 가능한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일하던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있다는 동료와 노사 간에 신뢰가 필요하며, 더 넓게는 채용부터 인사평가, 업무 문화, 하드웨어가 유기적으로 연결됐을 때 스마트워킹은 성공할 수 있다. 끝으로 스마트워킹 도입과 관련한 경영진, 정책관련자의 관심과 의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워킹 도입을 위한 설명회, 홍보 영상 등 회사 단위로 스마트워킹에 대한 폭넓고 지속적인 브랜딩 역시 필요하다.

참고자료

뉴스기사

1. "Smart Working: 5 Steps to Rethink Work", 《Market Inspector》, 2018.11.13
2. "재택근무, 삶의 질과 생산성 모두 높인다", 《경향신문》, 2018.11.02
3. "日 히타치, 재택근무 '텔레워크' 확대", 《뉴스핌》, 2018.08.02
4. "워라밸? 이제는 워프홈!", 《경향신문》, 2018.07.09
5. "38살 워킹대디의 하루... '워라밸' 해법은 유연근무제?", 《IT동아》, 2018.03.28
6.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 《IT동아》, 2018.05.29
7.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워킹 도입...직원 만족도 93%", 《미디어 SR》, 2017.03.31
8. "글로벌 ICT 기업의 전쟁터, '스마트워킹' 솔루션", 《한국경제매거진》, 2017.03.08
9. "곳곳에서 일어나는 노동 혁명... 세계는 지금 '스마트워킹' 중", 《한국경제매거진》, 2017.03.08
10. "스마트워킹", 《비즈니스 혁신의 10대 경영도구》,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

자료집

1. 장동익, 스마트워킹을 통한 비용절감, 《DBR Magazine》, 2018.06
2. 2017 스마트워킹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12
3. 오정연 수석, 스마트워킹 브리프,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08
4. 유상엽, 정부조직 원격근무제 논리모형,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2017

5. 유지윤 무역관, 스마트워킹 이탈리아 기업에 조용히 부는 바람, Kotra, 2015.11.23
6. 손정민, 공공기관 스마트워크와 조직 창의성 보고서, 한국생산성본부, 2014.01
7. 이해정, 미국의 텔레워크 정책 분석 및 시사점,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04
8. 박신정, 최근 Smart Work 동향, 《주간기술동향 통권 1476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12.15.
9. 권철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똑똑하게 일하기, 《Microsoft Sharepoint Server Case Study》, 2016.01.20.

사이트

스마트워크센터 www.smartwork.go.kr